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1, 125-139

#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김 은 정† 이 세 용 오 승 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기초로 하여 20문항을 제작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035명의 초등학교 5, 6 학년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는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총점간 상관이 매우 높았다. 요인분석 결과,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인 결과', '내성' 등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인터넷 중독 척도는 이용시간 및 인터넷 기대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통제력 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는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청소년, 신뢰도, 타당도,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은 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FAX : 031-219-2195 / E-mail : kej@ajou.ac.kr

컴퓨터와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새로운 심리장애가 출현하게 되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약물, 알콜,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Young, 1996).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업 실패가 초래되고(Brady, 1996; Murphey, 1996), 직업 수행이 저하되며(Robert Half International, 1996), 부부불화 및 별거가 야기되고(Quittner, 1997) 대인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Young, 1999).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정보화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면서도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91.3%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호, 강만철, 오익수, 김형근, 김건웅, 2001). 이제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일상 생활이자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새로운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의 연구에서는 성인에만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국내에서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적게는 전체 청소년들 중 9%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김진숙, 최수미, 강진구, 2000;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서주현, 2001; 김선우, 2002).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전국의 초, 중, 고교생 1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의 29.1%가 '인터넷 때문에 숙제나 학과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42.8%가 '밤에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잔 적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어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동, 윤영민, 정기선, 이세용, 2000).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적, 학업적, 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학업소홀, 성적저하 및 높은 결석률과 관련이 있고(Young, 1996),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행과도 관련이 있었다(조남근, 양돈규, 2001). 또한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친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서주현, 2001).

인터넷 중독을 평가하는 방법은 (1) 임상적 면접, (2) 행동 관찰, (3) 자기보고형 질문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자기보고형 질문지가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고, 객관적이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이고, 인터넷상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성인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 Brenner(1997)의 인터넷 중독 행동 질문지(Internet-Related Addictive Behavior Inventory: IRABI), Morahan-Martin과 Schumacher(1997)의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 검사(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Greenfield(1999)의 가상 중독 검사(Virtual Addiction Test:VAT)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는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검사이다. Young(1996)

은 DSM-IV(1994)의 병적 도박의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기 위한 8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 접속하지 않았을 때에도 접속했을 때의 경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 만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느낀다, (3) 인터넷 사용 중단을 결심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4)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진다, (5) 의도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6)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중요한 대인관계, 직업, 학업, 경력상의 기회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 (7) 인터넷에 빠져있다는 것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거짓말한 경험이 있다, (8)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Young(1998)은 이런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 이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학업부진, 가정에서의 소홀, 대인관계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적 변화 등을 나타낸다. 이 검사는 5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합산한 총점이 50점이 넘을 경우에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 등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는 인터넷 중독의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포괄하고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로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와 강만철과 오익수(2001)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척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를 사용하였다. 강만철과 오익수는 인터넷 중독의 구성요인으로 집착,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재발, 내성 및 의존성, 생활장애라고 정의한 다음, 이를 측정하는 25문항을 선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즉 신뢰도 계수, 요인분석, 및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와의 상관을 통해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정의한 구성요인들이 선행 연구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집착,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재발, 내성 및 의존성이라는 요인들은 개념간에 중복되고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는 외국에서 널리 쓰이는 진단도구이며 인터넷 중독 진단 점수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중독의 중요한 요인인 내성, 금단, 생활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인해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가 국내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척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 척도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을 사용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숙, 최수미 및 강진구(2000)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Young(1998)의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29.35%가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39.9%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17.8%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였다.

한국여성민우회(2000) 조사에서 Young(1998)의 척도를 사용하여 50점 이상을 중독자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조사 대상의 14.3%가 인터넷 중독자에 해당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이용 목적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친구사귀기/채팅, 시간 때우기나 별다른 목적이 없다는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서주현(2001)은 396명의 고1학생을 대상으로 Young(1998)의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50점이상을 초기중독자, 80점이상을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37.8%가 초기 인터넷 중독자이고, 2.7%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났다. 김선우(2002)는 128명의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Young(1998)의 척도중 15문항을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중 39.8%가 초기 인터넷 중독성향자였고, 7.0%가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중독 성향자들은 적게는 14.3%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만을 확인한 채 사용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요인분석,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등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둘째, 연구대상이 달랐다. 연구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할 지라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만 연구를 하였던지 아니면 중고생 일부만을 조사하였다. 셋째,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달랐다. 위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Young(1998)의 척도는 청소년용이 아니라 성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게 수정되지 않았고 연구자마다 문항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가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척도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다음 대표성이 있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밝히고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대상

성별, 지역, 학년 및 학교유형(인문고/실업고)를 고려하여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여 학생 1,107명을 표집하였다. 조사 성격상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인터넷을 주 1-2회 이상 이용하는 대상만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인터넷 주 이용대상을 선정하여야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본은 10개 초등학교에서 254명, 27개 중학교에서 437명, 18개 고등학교에서 4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교사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2개를 제외하고 인터넷 중독 척도 문항중 한문항이라도 빠뜨린 70개를 제외하여 최종 1035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 도구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이 척도는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1명의 임상심리학 박사, 1명의 사회학 박사, 1명의 교육학 박사과정생, 1명의 석사출신 사회복지사가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안하였고,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몇몇 문항들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 이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학업부진, 가정에서의 소홀, 대인관계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적 변화 등을 반영한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에서 5점까지의 6점 척도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00점이다.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0-49점은 평균 이용자이며 50-79점일 경우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중독성향자로 80점 이상이 중독군이다.

#### 인터넷 기대 척도

이 척도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기존 문헌과 Fromme, Stroot, 및 Kaplan(1993)의 음주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를 참고로 해서 제작하였다(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이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분석 결과는 4개 요인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요인 1은 자신감 획득(16.65%), 요인 2는 갈등 해소(16.26%), 요인 3은 정보화 획득(12.94%), 요인 4는 인간관계 증진(10.80%)이었다. 이 4가지 요인이 전체 변량의 56.6%을 설명하였다. 35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한 전체 문항에 대한 α 계수는 .93이었으며 요인 1의 α 계수는 .87, 요인 2의 α 계수는 .87, 요인 3의 α 계수는 .82, 요인 4의 α 계수는 .85였다.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 자기통제력 척도

송원영(1998)이 일반적인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endall과 Wilcox(1979)의 교사나 부모 보고형 자기통제 척도를 송원영이 자기보고형으로 고쳐 제작하였다. 5점 척도의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가 9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한 α 계수는 .82였다.

## 결 과

### 신뢰도

#### 내적 합치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α 계수는 .91로 매우 높았다. 각 요인별로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간 상관을 살펴보면, 요인 1의 α 계수는 .87로 내적 합치도가 매우 높았고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은 .35에서 .62로 양호하였다. 요인 2의 α 계수는 .76으로 높았고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40에서 .71로 일관성이 높았다. 요인 3의 α 계수는 .75로 높았고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도 .41에서 .65에 이르러 양호하였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

35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로서 높았다. 이로 볼 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는 상당히 신뢰로운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 타당도

이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살펴보았고, 둘째, 이용시간, 이용횟수, 인터넷 기대 척도 및 자기통제력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 요인분석

이 척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5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이 추출되었고 선행연구들과 문헌들을 참조할 때 이런 3 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핵심적 요인인 의존성, 금단, 내성, 부정적 결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 요인을 지정하여 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번과 16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각각 세 개의 요인에 부하되었다. 7, 16번 문항은 요인 1와 요인 3에 거의 동등하게 부하되었으나, 요인부하가 가장 큰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용상이나 연구 등을 참고할 때도 요인 3에 부하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요인 3에 포함시켰다.

세 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44.11%를 설명하였다. 요인구조계수행렬과 요인변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인터넷에 대한 강한 집착과 오프라인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인터넷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및 학업적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정적 결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오랜시간 온라인의 접속 및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요인 1이 전체의 변량의 33.70%를 설명하여 가장 설명량이 가장 컸다. 반면, 요인 2와 요인 3은 각각 5.52%, 4.90%로 상대적으로 설명량이 적었다. 세 요인간의 상관간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은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 2와는 .54상관을, '내성'을 나타내는 요인 3과는 .66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요인 2와 요인 3은 .50의 상관을 보였다.

### 인터넷 중독과 이용시간 및 다른 질문지와의 상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용 횟수 및 다른 질문지(충동성 및 인터넷 기대 질문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 점수는 이용횟수와는 .33의 정적 상관을 이용시간과는 .32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2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척도는 자기통제능력 척도와 .-20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터넷 기대 질문지와는 .61의 상관을 보여 인터넷 중독 척도의 공존타당도가 양호함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가 요일별로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함으로, 각 요인별로 자기통제 척도와 인터넷 기대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이 인터넷 기대 척도와 .66의 상관을 보였고, 내성을 나타내는 요인 3이 인터넷 기대 척도와 .47의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 2는 인터넷 기

표 1.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 문 항 | 요인 | |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1.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 .36 | -.21 | **-.79** |
| 2.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될 일을 소홀히 한다 | .49 | -.53 | **-.75** |
| 3.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인터넷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57** | -.37 | -.35 |
| 4.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 **.44** | -.27 | -.39 |
| 5.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 .41 | **-.53** | -.35 |
| 6.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 일에 지장을 받는다 | .43 | **-.85** | -.29 |
| 7. 공부나 해야할 일을 하기 전에 이메일부터 먼저 확인한다 | .41 | -.39 | **-.42** |
| 8. 인터넷 때문에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 | .44 | **-.82** | -.24 |
| 9.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 볼 때 숨긴다 | **.37** | -.29 | -.16 |
| 10. 현실의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인터넷을 하게 된다 | **.58** | -.26 | -.33 |
| 11. 다시 인터넷 하기를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 **.61** | -.26 | -.53 |
| 12. 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지루하고, 허전하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 **.64** | -.32 | -.45 |
| 13. 인터넷 접속 중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소리지르고 고함치거나 막 화를 낸다 | **.57** | -.32 | -.28 |
| 14.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 **.56** | -.42 | -.42 |
| 15.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접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 **.73** | -.38 | -.30 |
| 16. 인터넷을 할 때, “조금만 더하고 그만두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 .58 | -.36 | **-.61** |
| 17.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 **.62** | -.49 | -.53 |
| 18.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숨기려고 한다 | **.61** | -.49 | -.20 |
| 19. 남들과 밖에서 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시간 보내는 걸 택한다 | **.66** | -.36 | -.27 |
| 2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울적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 **.70** | -.30 | -.27 |
| 고유치 | 7.35 | 1.50 | 1.41 |
| 설명변량 | 33.7% | 5.52% | 4.90% |

**주.** 요인 1은 의존성 및 금단 증상, 요인 2는 부정적 결과, 요인 3은 내성

대 척도와 .27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각 요인별로 자기통제력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내성’을 나타내는 요인 3이 자기통제력 척도와 -.22의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 2가 .-.18의 상관을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이 -.15의 상관을 보였다.

표 2. 한국판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기대 척도 및 자기통제력 척도간의 상관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총점 |
|---|---|---|---|---|
| 인터넷 기대 척도 | .66*** | .27*** | .47*** | .61*** |
| 자기통제력 척도 | -.15*** | -.18*** | -.22*** | .20*** |

주. 요인 1은 의존성 및 금단 증상, 요인 2는 부정적 결과, 요인 3은 내성
*** $p$<.001

### 성별 및 학년별 인터넷 중독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중독성향자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전체 점수 및 3개 요인 각각의 점수에 대해 남녀 및 학년간 점수를 비교하였다. 표 3에 남녀와 학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전체 점수 및 3개 요인 각각의 점수를 제시하였다. 성별 및 학년별 인터넷 중독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021)= 7.43$, $p<.01$.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학년별 요인 1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021)= 11.48$, $p<.01$.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에 강박적으로 더 집착하고 의존성이 많으며 오프라인시 금단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학년별 요인 2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녀와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1,1021)= 37.48$, $p<.0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6,1021)= 3.69$, $p<.001$, 어느 학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표 3. 성별 및 학년별 인터넷 중독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 N | 총점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 성별 | 남 | 553 | 26.10(17.48) | 15.66(12.00) | 3.52(3.51) | 7.60(4.79) |
| | 여 | 482 | 22.90(16.65) | 13.29(11.00) | 2.34(2.83) | 7.69(4.92) |
| 학년 | 초5 | 110 | 21.16(16.50) | 13.72(11.48) | 2.05(2.60) | 5.82(4.26) |
| | 초6 | 115 | 26.03(19.95) | 16.03(13.46) | 3.07(3.37) | 7.92(5.08) |
| | 중1 | 134 | 26.16(19.19) | 15.84(12.75) | 2.93(3.25) | 7.58(5.19) |
| | 중2 | 143 | 23.99(17.28) | 14.27(12.00) | 2.77(2.98) | 7.59(4.88) |
| | 중3 | 141 | 25.18(16.66) | 14.56(11.40) | 2.60(3.15) | 8.20(4.81) |
| | 고1 | 190 | 24.81(16.77) | 14.26(10.67) | 3.45(3.58) | 8.07(5.00) |
| | 고2 | 202 | 24.50(15.59) | 13.85(10.30) | 3.46(3.41) | 7.80(4.43) |

주. (  )는 표준편차임.

표 4. 성별 및 학년별 인터넷 중독성향자수

| | | 인터넷 중독 분류 | | 합계 |
|---|---|---|---|---|
| | | 정상군 | 중독군 | |
| 성별 | 남 | 492(88.9) | 61(11.1) | 553(100.0) |
| | 여 | 446(92.5) | 36(7.5) | 482(100.0) |
| 학교 | 초등학생 | 200(88.9) | 25(11.1) | 225(100.0) |
| | 중학생 | 372(89.0) | 46(11.0) | 418(100.0) |
| | 고등학생 | 366(93.4) | 26(6.6) | 392(100.0) |
| 합계 | | 938(90.6) | 97(9.4) | 1035(100.0) |

주. ( )은 %임.

Scheff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1, 고 2학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 비해 인터넷에 인한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성별 및 학년별 요인 3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1021)= 3.72$, $p<.001$.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Scheff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3, 고1, 고 2학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 비해 인터넷에 더 오랜 시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중독자들을 분류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가 50점이상인 중독성향자의 비율은 인터넷을 사용한 청소년중 9.4%로 나타났다. 성별로 중독성향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11.1%가 중독성향자로 선별된 반면, 여학생의 경우 7.5%가 중독성향자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11.1%와 중학생의 11%가 중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고등학생은 6.6%가 중독성향자로 드러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한국판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개발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이 척도는 Young(1998)이 제작한 20문항 인터넷 중독 척도를 한국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 문항-총점 상관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척도의 α 계수는 .91로 매우 높았고 각 요인별 상관계수도 매우 높았다. 문항-총점간의 상관도 .35에서 .71로 양호하여 내적 합치도 신뢰도도 높았다. 또한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87로 매우 높아 시간적 안정성 신뢰도도 매우 높았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가 내적 합치도가 높고 시간에 따른 안정적인 검사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이용시간, 이용횟수 및 다른 질문지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 척도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3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요인 1은 '의존성 및 금단증상'으로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박적 집착 및 오프라인시 금단증상을 측정하고, 요인 2는 '부정적 결과'로 인터넷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및 학업적 부정적 결과를 측정하며, 요인 3은 '내성'으로 오랜시간 온라인 접속 및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척도와 인터넷 관련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 점수와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 점수와 자기통제력 척도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척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임을 알 수 있다.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3 요인 구조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의 요인 분석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없어서 비교하기 힘들었지만, Young(1996)의 진단준거와 Goldberg (1996)의 진단준거와도 부합한다. Young(1996)은 DSM-IV(1994)의 병적 도박의 기준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기준을 제작하고 5항목 이상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독자로 분류하였다: 오랜 시간 온라인의 접속, 오프라인시 금단 현상,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접속,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 온라인 접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인터넷 이용으로 생활상의 문제 발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빨리 접속해지고 싶어함. Young(1996)의 진단준거중 오프라인시 금단 현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빨리 접속해지고 싶어함, 온라인 접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 등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에 해당되며,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인터넷 이용으로 생활상의 문제 발생 등은 인터넷의 부정적 결과에 해당되는 요인 2에 해당되고, 오랜 시간 온라인의 접속,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접속,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 등은 내성 측정하는 요인 3에 해당된다.

Goldberg(1996)도 인터넷 중독 장애를 재는 7가지 주요 진단 준거를 제공하였다. 이 준거에 따르면, 지난 12개월중 어느 때든지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패턴으로 인한 내성, 금단, 접속시간의 증가, 사용 중단시도의 실패,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상실, 여가활동의 상실,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들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들 중 3항목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손상이나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진단을 내리게 된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Goldberg(1996)의 진단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Armstrong, Phillps, 및 Saling(2000)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과 관련해서 두 개의 증상들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부정적인 사회적, 가족적 결과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에 대한 통제 상실이다. 이런 두가지 면도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 결과, 내성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Young(1997)은 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자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인터넷중독자들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상실을 보고하였으며 학업, 대인관계, 직업, 재정, 신체 영역에서 중간에서 심각한 수준까지의 손상을 보고하였다. 이런 중독자들의 특성에도 본 연구결과의 요인구조와 일치한다.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은 Young(1998)이 말하는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포함하며 의존성이란 마음이 복잡하고 허전할 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말하며 금단 증상이란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또는 백일몽)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터넷 중독의 가장 중요한 진단기준

으로 삼고 있는 의존성, 내성 및 금단 증상이므로, 요인 1은 세가지 요인 중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연구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Young, 1996; Goldberg, 1996; 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Griffiths, 1999). 요인 1은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을 병적 도박의 기준으로 적용하던지 약물남용의 기준을 적용하던지간에 다 해당되는 요인이다.

인터넷의 '부정적 결과'에 해당되는 요인 2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일상생활 즉, 직업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적인 영역과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renner, 1997; Egger, 1996; 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Scherer & Bost, 1997; Thompson, 1996; Young, 1996, 1997a, 1997b, 1998, 1999). 위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직업적, 학문적, 사회적, 가족적, 신체적, 재정적,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킬 때에 병리적이 된다고 하였다.

'내성'을 나타내는 요인 3은 인터넷을 더 많이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인터넷을 끝내고 나오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자와 정상적인 사용자간에 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많이 나타났다(Young, 1996; 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Sherer, 1997; 윤영민, 2000; 김선우, 2002). 그러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 병리적인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사용시간과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 점수와 인터넷 중독 관련 구성개념인 자기통제력 점수가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통제(self-control)라는 개념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ogue(1995)는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고 주어지는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impulsiveness)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충동조절의 장애, 중독이다. 위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병적 도박과도 같은 성질을 지니며,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충동조절장애라고 주장한 Young(1996)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 점수와 인터넷 기대 점수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인터넷 중독 문제의 이해 및 치료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중 하나는 인터넷 이용결과에 대한 기대(인터넷 기대)라는 점과 부합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인터넷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인별로는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 1이 인터넷 기대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인터넷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인터넷에 대해 강박적 집착을 보이며 오프라인시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기대가 음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가장 강력한 예인변인으로 남았다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때

인터넷 기대 척도와 인터넷 중독 척도간의 높은 상관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Leigh, 1989; Goldman, 1994; Goldman, Frances, Boca, & Darkes, 1999).

성별 인터넷 중독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 이용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보인 이유는 몇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남학생들이 더 수용적이고 접근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남학생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셋째,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성(음란물) 관련 사이트에 훨씬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김경동 등, 2000).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의 중요한 심리적 장애로 등장한 인터넷 중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병리 및 치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척도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타당화 과정없이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과 타당도가 보장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히 신뢰로운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척도는 임상적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인터넷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에 특정적인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을 방문한 내담자들의 중독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며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는 자기보고형 척도이므로, 자기보고형 척도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평가하는 임상적 면접이나 관찰법을 함께 사용하여 다른 측정법을 이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므로 병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상담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만철, 오익수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 개발(I). 교육심리연구, 15(4), 5-21.

김경동, 윤영민, 정기선, 이세용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숙, 최수미, 강진구 (2000)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실태. 청소년의 PC중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박경호, 강만철, 오익수, 김형근, 김건웅 (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 중독 실태조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지정조사. 정보통신부.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

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영민 (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

한국여성민우회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Armstrong, L., Phillps, J. G., & Saling, L. L. (2000).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53,* 537-550.

Brady, K. (1996). Dropouts rise a net result of computers. *The Buffalo Evening News,* 1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Egger, O. (1996). Internet behaviour and addiction. Unpublished thesis,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Fromme, K., Stroot, E., & Kaplan, D. (1993). Comprehensive effects of alcoho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ssessment of new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9-26.

Goldman, M. S. (1994). The alcohol expectancy concept: Application to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alcohol abus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3,* 131-144.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Goldman, M. S., Frances, K., Boca, D., & Darkes, J. (1999). Alcohol expectancy theory: The application of cognitive neuroscience. In K. E. Leonard, H. T. Blane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holism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Greenfield, D. (1999). *Virtual addiction*.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0.

Leigh, B. C. (1989). In search of seven dwarves: Issues of measurement and meaning in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5,* 361-373.

Kendall, P. C.,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Logue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Morahan-Martin, J. M. & Schumacher, P. (199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Murphey, B. (1996). Computer addictions entangle students. *The APA Monitor.*

Quitter, J. (1997). Divorce internet style. *Time,* 72.

Robert Half International Inc. (1996). Misuse of the internet may hamper productivity. Report from an internet study conducted by a private

marketing research group.

Scherer, K. (1997). College life online: Heathy and unhealthy Internet use. *Journal of College Life and Development, 38,* 655-665.

Scherer, K. & Bost, J. (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Thompson, S. (1996). Internet connectivity: Addiction and dep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Young K. S. (1997a).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 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 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 ation, Chicago, IL. http://netaddiction.com/article s/habitforming.htm.

Young K. S. (1997b). Levels of depression and addiction underlying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 com/articles/symptoms.htm.

원 고 접 수 일 : 2002. 8. 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0. 22
게 재 확 정 일 : 2002. 11. 19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1, 125- 139

# The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K-AIAS)

Eun-Jung Kim Seyong Lee Seung-Geun Oh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Samsung Insitute of Social Psychiatry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K-AIAS). The scale was based on the 20-item Young(1998)'s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was converted to Korean adolescents. Several self-report inventories were administered to 1035 adolescents. The results showed that K-AIAS wa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temporal stability an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K-AIAS had three factors labeled 'Dependence and 'Withdrawal', 'Negative consequences', and 'Tolerance'. K-AI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urs per week, frequency per week, and Internet Expectancy Sale. On the other hand, K-AI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Scale. In conclusion, K-AIAS appears to be a highly reliable and valid measure to assess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s, reliability, validity , K-AIAS*